

2022년 3월 26일
사순절 넷째 주일



민들레교회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의 시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침묵으로 각자 기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40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마지막 40일처럼 여기며 채워가게 하소서. 마지막 40일에 해야할 중요한 일들, 소중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상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하루를 잊어버린 우리 일상을 비추어보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몸과 영혼을 보소서, 다시 회복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 옵소서 - 오 -- 주님 -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경 -

나를 주님 앞에 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

그 구원의 기쁨 -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virgin Mary,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하늘에 오르시어

He ascended into heaven,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46 두려워 말라 Nada te turbe

Na - da te tur - be, na - da te_es-pan - te; quien a Dios tie - ne na - da le fal - ta.
두 려 워 말 라 걱 정 을 말 라 주 님 계 시 니 아 쇠 움 없 네

Am Dm⁷ G CMaj⁷ F Dm⁶ E⁴ 3 Am

Na - da te tur - be, na - da te_es-pan - te: só - lo Dios ba - sta.
두 려 워 말 라 걱 정 을 말 라 주 님 안 에 서

Am Dm⁷ G CMaj⁷ F Dm⁶ E Am

우리의 기도

이승재 집사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심미나 청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19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21**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22**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24**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25**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26**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27**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28**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29**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봉사를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30**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생각을 나눕니다
향기

저는 세례를 받았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만,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세례를 받은 사실과 신학 학위와 목사 안수를 받은 건 분명 사실이라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행 11:26).」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입니다. 세례와 신학 학위와 목사 자격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은 서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공식문서로 확인할 수 없고, 향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후2:14~15).」

그리스도인은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 나는 호칭을 얻었던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였습니다.

안디옥교회를 처음 지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었습니다(행4:36;11:22).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언젠가 있을 유대 본토의 회복을 기대하며 예루살렘 인근에 밭을 사두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회복은 유대 국경에 제한되지 않음을 깨달았겠습니다. 옛 다윗의 영토를 수복하는 게 아니라, 국경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나라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합니다. 밭을 팔아 더 불어 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

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행4:36~37)」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유무상통 공동체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지요.

유대 국경을 넘어,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향기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교회를 든든하게 한 이가 바나바였던 겁니다(행11:22~23).

안디옥 사람들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았던 데에는 또렷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유무상통 공동체가 안디옥에도 이식되었을 것입니다(행5:32).

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은 내가 사용한다는 것이지, 내가 소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내 소유는, 다른 사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교회가 ‘큰 흉년’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소유한 것을 내놓기로 합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뜻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행11:27~30)」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나눔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으로 나눔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안디

옥교회 사람들에게 향기가 났습니다.

내 것을 다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 외에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누라 하십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살지 않으면서 소유한 것이 있다면 팔아야 합니다. 예금 잔고를 털어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衣食)과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으로 소유한 것이 있다면 나눠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부동산과 재물이 있다면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교회에 부조를 보냈던 것처럼 나누라 하십니다. 나눔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향기를 머금는 것이요, 진리를 손과 발로 실천하는 것이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입’을 ‘먹사’라 비아냥대지만, 교회의 ‘손과 발’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합니다.

퍼지지 않는 향기는 없습니다. 바나바의 향기가 안디옥교회에 퍼졌고, 안디옥교회의 향기가 도시 전체에 퍼지기 마련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 때, 우리의 신앙고백은 참입니다.

유능한 목사·장로·권사·집사 되기보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문서와 통계와 스펙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는 향기로 이력서를 대신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다시 창조하시길 소원합니다(창2:7).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길 소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암화사 이자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나 - 너를 투한 생명이 - 흘려가
 이 - 너를 투한 생명이 - 흘려가 이
 * 사랑이, 기쁨이

말씀을 따라 서로 축복합니다

목사: 2천 년 전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백 년 전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함께: 교회가 권력에 오염되지 않고, 오늘도 향기 되게 하소서

목사: 우리의 손과 발에서 향기 나게 하소서

함께: 사람들 맞잡은 손에서, 낮은 자리에 서 있는 발에서 향기나게
하소서

목사: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
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함께: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소식

- 3월 29일(화) 저녁 7시, 복음과상황 독자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 3월 30일(수) 저녁 7시 30분, ‘성인지감수성’ 강의를 듣습니다. 책 <양성평등은 없다>를 중심으로 대화합니다.
- 4월 1일(금) 저녁 8시부터 50분 동안 사도행전 12장을 필사하며 기도합니다
-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들이 많습니다. 기도합니다.